

독서 태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연령대별 독서활동과 독서효능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Reading Attitudes: Focusing on Reading Activities and Reading Efficacy by Age Group

김 지 현 (Ji-Hyun Kim)*

초 록

이 연구는 각 연령대의 독서활동과 독서효능감을 측정하여 독서태도에 대한 각 변인들 간의 주요 영향과 상호관계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인근 공공도서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17건의 응답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30대와 40대보다 20대의 독서 효능감이 높게 분석되었고, 독서효능감이 높을수록 독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간 독서량에 대한 분석에서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독서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독서태도에 대한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독서시간이 적은 집단에서 독서태도가 낮았고, 많은 책을 오랜 시간 읽을수록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가진다고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measured reading activities and reading efficacy of each age group and investigated the main influences and inter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on reading attitudes. The survey was conducted at middle and high schools, universities, and nearby public libraries of all age groups, and analyzing 117 responses. The results showed that higher reading efficacy positively influenced reading attitudes, with adolescents and 20s reporting higher reading efficacy than 30s and 40s. Analysis of weekly reading volume revealed that those who reported no reading per week had the lowest reading efficacy. In terms of reading attitudes, it was found that groups with less reading time had lower reading attitudes overall, and that reading more books and longer periods of time was associated with a more positive reading attitude.

키워드: 독서효능감, 독서태도, 독서활동, 연령별 특성, 독서율

Reading Efficacy, Reading Attitude, Reading Activities, Characteristics by Age, Reading Rates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ihkim@jnu.ac.kr)

논문접수일자 : 2025년 11월 24일 논문심사일자 : 2025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자 : 2025년 12월 5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4): 333-349, 202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5.36.4.333>

※ Copyright © 2025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우리는 독서에 의한 간접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내적 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얻어왔다. 현대 사회에서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수단을 넘어 정서적 성장과 평생 교육을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남태우, 류반디, 2012). 꾸준한 독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길러주는 원동력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독서에 대한 흥미가 줄고 독서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문체부에서 2024년에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에 따르면 성인 독서율은 43%로 성인 중 과반수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고 청소년의 독서량도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독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독서효능감과 책을 가까이하고 즐겨 읽는 긍정적인 독서 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전보라, 2020; 최윤희, 2015). 독서효능감은 읽기 행동을 촉발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독서태도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태도 그리고 독서하려는 행동 의지가 포함된 일관성 있는 마음의 상태를 지칭한다(변우열, 2012). 독서효능감은 독서행동을 통해 독서 이해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독서태도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Carroll & Fox, 2017). 즉, 독서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책을 더 많이 읽고, 이러한 독서행동이 긍정적 독서태도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독서태도는 독서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간주되는데, 왜냐하면 각 개인의 태도는 어떤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것을 추구하도록 충동질하여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왕효성, 2014).

성별과 연령에 따른 영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독서태도가 긍정적이지만(변미경, 2012), 독서효능감과 독서태도는 연령에 따른 일치된 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또한, 독서량이 독서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정대근, 2022), 독서량과 독서시간의 독서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렇듯 최근 독서를 늘리기 위한 독서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이나 성인 등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고, 독서의 효능감이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대별 차이에 의한 독서활동의 독서효능감과 독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연령대의 독서활동과 독서 효능감을 측정하여 독서태도에 대한 각 변인들 간의 주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각 변인의 영향에 관한 결과는 독서율 향상에 대한 논의와 독서 교육 현장 및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독서효능감

독서효능감은 Albert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반한다. 자기효능감 이론은 학생들

의 학업성취와 불안을 설명하는데 자주 활용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주관적 판단에 기준을 둔 자신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Bandura, 1977).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그리고 생리적/정서적 감각 상태의 네 가지 요인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최윤희(2015)는 이 네 가지 요인을 독서효능감과 연관하여 설명하였는데, 성취경험은 독서와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던 직접 경험으로 독서효능감에 적용된다. 대리 경험은 다른 사람의 성공적으로 수행된 독서활동을 관찰하였던 경험들, 그리고 언어적 설득은 부모나 교수로부터 받은 긍정적 칭찬과 피드백으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생리적/정서적 감각상태는 독서활동 중에 개인이 느끼는 생리적/정서적 감각상태로 적용 가능하다.

이렇듯 독서효능감은 이용자가 자신의 책을 읽는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실제로 독서를 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최윤희(2015)는 독서효능감의 증진을 위해 긍정적인 사회적 피드백, 즐겁고 몰입적인 독서 경험 조성, 그리고 독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주장하였다. Carroll과 Fox(2017)의 연구에 의하면, 독서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독서효능감이 낮은 학생에 비해 더 노력하고, 인내하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구하려고 한다고 한다. 하지만 독서효능감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교육적 개입을 통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Carroll & Fox, 2017).

독서효능감은 독해력의 향상과도 관계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는데, Unrau et al.(2017)은 독서효능감의 향상이 독해력 향상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학생의 학년 수준, 독서효능감 형성에 기여하는 정보원의 수(교사, 또래, 부모)와 같은 변인들이 독서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항미와 정혜원(2019)은 독서 효능감은 생애 주기별로 고유한 특성이 나타남을 연구하였다. 청소년기에는 학생들이 정서적/신체적으로 급성장하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시기이므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할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이 시기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압박으로 독서량이 감소하려 자기효능감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독서가 학업성취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통해 이 시기 독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이항미, 정혜원, 2019).

독서효능감과 독서태도와의 관계에서 독서태도의 인지, 감정, 행동의 요소에 독서효능감을 포함하는 연구(박주현, 이명규, 2015; 이순영 외, 2015)도 있지만, 독서효능감은 독서 동기의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분리하는 게 좋다는 연구(Carroll & Fox, 2017)와, 독서 동기는 독서 태도를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김선미, 박찬호, 2018)도 수행되었다. Rachmajanti와 Musthofiyah(2017)는 독서효능감과 독서 동기는 상호 양방향적 관계를 가지며, 높은 독서효능감은 긍정적인 독서태도로 이어지고, 긍정적인 독서태도는 더 많은 독서 경험을 유도하여 다시 독서효능감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하였다. McKenna

(1994)의 이론에서도 독서효능감이 독서태도의 중요 요인들 중 하나로 결론내렸다.

이렇듯, 연구자에 따라 독서효능감을 조사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이항미, 정혜원, 2019; 최윤희, 2015; Cancino & Gonzalez, 2023; Carroll & Fox, 2017)을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독서효능감과 독서태도를 분리하여 상호관계를 조사하려고 한다.

2.2 독서태도

독서태도(Reading Attitude)는 독서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준비 상태를 의미하며, 독서 행위에 대한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과 독서를 하려는 행동의지를 포함한다(Mathewson, 1994). 전보라(2020)도 독서태도는 독서를 하는 자세와 같은 독서행동적 요소와 책을 읽음으로 느끼는 쾌감 등의 정의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독서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Mathewson(1994)은 독서행동과 독서태도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인지적(cognitive), 정의적(affective), 행동적(behavioral) 영역의 특성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McKenna(1994)는 Liska(1984), Ruddell과 Speaker(1985), 그리고 Mathewson(1994)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독서태도를 주관적 규범에 대한 신념, 독서결과에 대한 신념, 독서경험의 영향을 받아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독서태도는 일반적으로 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며 넓은 의미에서 독서선호도, 독서동기, 독서효능감, 독서몰입, 그리고 독서에 대한 인식이나 자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이순영 외, 2015).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 태도에 대한 검사 도구가 개발되고 있으며 측정 문항 구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윤준채(2008)의 연구는 매튜슨(Mathewson, 1994)과 유사하게 인지(cognition), 정의(affect), 행동(behavior) 등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연옥(2011)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가치, 긍정적 독서경험, 부정적 독서경험, 그리고 독서 관련 경험과 대상의 연상으로 독서태도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박주현과 이명규(2015)는 독서태도의 구성요인을 인지, 정서, 행동의지를 포함하였고, 독서태도, 독서목적, 독서환경, 독서행동의 4차원 구조 형태를 제시하였다. 김선미와 박찬호(2018)는 독서태도 요인추출을 위해 초·중·고등학생 1,2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독서태도 요인을 습관, 필요성, 지속의지, 즐거움의 4개로 추출하였다. 전보라(2020)는 선행연구를 통해 독서태도 구성요소를 만들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대학생용 독서태도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정대근(2022)은 대학생들의 독서율 향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독서율 및 독서태도가 성격유형 간의 영향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독서량의 독서태도에 대한 영향력을 밝혔고, 개방적 성격이 독서량과 독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내렸다. 김지숙과 김기영(2020)은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여 독서태도 강화와 독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학교 환경요인, 개인 특성, 독서교육 인식이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독서교육과 독서율 향상을

위해 독서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목적 맞게 독서태도 구성요소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분류를 통해 독서에 대한 인식, 독서감성, 독서몰입, 그리고 독서하려는 의지와 행동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를 위해 작성된 독서태도의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3 연구설계

본 연구 연령대별 독서활동(독서량, 독서시간), 독서효능감, 독서태도의 관계성을 분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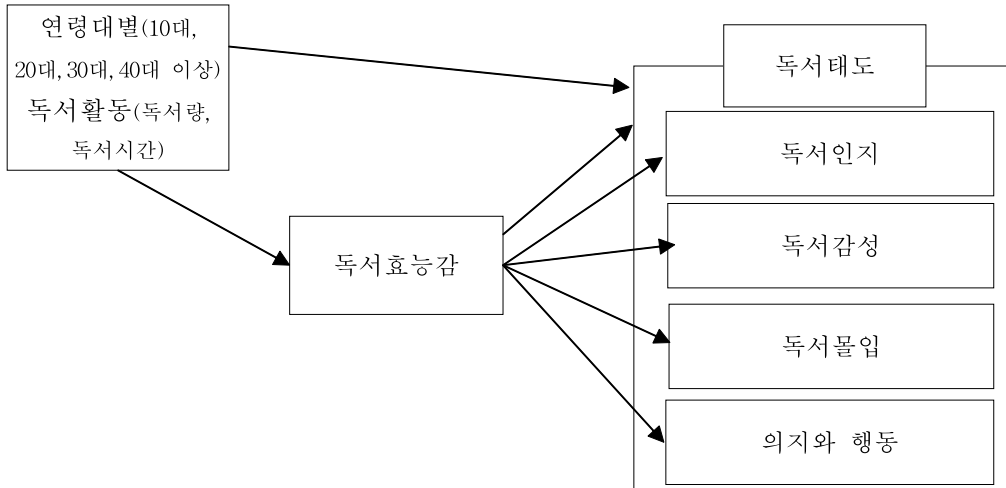
고자 하였다. 독서태도의 구성요소는 독서인지, 독서감성, 독서몰입, 독서의지와 행동으로 구성되었으며 독서효능감은 전체 독서태도에 대한 영향 관계뿐 아니라 각 구성요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를 연구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대별 독서활동(독서량, 독서시간)이 독서효능감과 독서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관련 연구에서 일관되게 제시되는 연구결과로는 독서량과 독서태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정대근, 2022; Cancino & Gonzalez, 2023). 본 연구에서는

<표 1> 독서태도 구성요소

분류	항목	세부 내용	참고문헌
인지적	독서에 대한 인지	독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나 지식을 얻은 경험 유무	Mathewson(1994), 박주현과 이명규(2015), 전보라(2020)
		책을 읽는 행동의 중요성	
		독서의 우리의 삶에 유용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독서의 중요성	
정서적	독서감성	독서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변우열(2012), 박주현과 이명규(2015), 김선미와 박찬호(2018), 전보라(2020)
		책을 읽는 시간의 즐거움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	
		책을 선물 받을 때 즐거움	
		책의 내용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즐거움	
정서적	독서몰입	독서력 증진을 위해 개설된 독서 수업의 선호	김선미와 박찬호(2018), 전보라(2020)
		책에 몰입할 때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	
		특정 책에 몰입하면 그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	
		가끔 책의 등장인물이 마치 나인 것 같은 느낌	
		슬픈 내용의 책을 읽을 때 기분의 동화	
행동적	의지와 행동	집중하여 책을 읽고 나면 기분이 좋음	박주현과 이명규(2015), 김선미와 박찬호(2018), 전보라(2020), 김지숙과 김기영(2020)
		책을 자주 읽으려고 하는 노력	
		도서관에서 책을 자주 빌리려는 행동	
		중중 재미있게 읽은 책을 친구들에게 추천	
		책을 읽고 난 뒤의 느낀 점을 글로 표현	
독서모임에 참여해 타인과 책에 대한 의견 나눔			
		독서를 위해 책을 자주 구입하는 행동	



〈그림 1〉 연구모형

다양한 통계조사의 방법으로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둘째, 개인의 독서효능감이 독서태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독서효능감과 독서태도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지만,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관계성을 조사하였다.

3. 연구방법과 절차

3.1 측정도구

이 연구는 각 연령대의 독서활동과 독서효능감을 측정하여 독서태도에 대한 각 변인들 간의 주요 영향과 상호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응한 참여자는 모두 136명으로, 이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을 한 14건을 제외하고 122건의 응답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조사기간은 2025년 2월

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네 달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인근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 사서와 사서교사의 도움으로 10대,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이상 각 연령층이 모두 포함되는 조사가 되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은 기존의 연구들(김선미, 박찬호, 2018; 박주현, 이명규, 2016; 이향미, 정혜원, 2019; 전보라, 2020; 최윤희, 2015)을 참조하여 만들었다. 기존에 개발된 척도들이 본 연구와 연구목적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특정 연령층에게 적절하지 않은 설문 문항의 용어와 설문요소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들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설문항목의 적절성은 전공 관련 연구자 10명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논의하고 또한 pretest를 실시하였다. 설문항목들에 대한 통계적 검사를 통해 측정 항목 등 총 33개의 설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최종 설문 문항은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연령)과 독서활동(독서량, 독서시간), 독서효능감, 독서태도로 구성되었다.

3.2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는 실증 분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독립 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SPSS 29.0을 사용하였다. 먼저 응답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연령)과 독서활동(독서량, 독서시간)을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 분석을 통해서 독서효능감과 독서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추가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연령과 독서활동(독서량, 독서시간)에 의한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대별 독서활동, 독서효능감, 그리고 독서태도의 집단 간 상호영향력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

다. 연구결과의 통계적 해석을 위해 유의도 수준을 95%로 설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 일반 현황과 독서활동

이 연구는 청소년, 청년, 중년의 각 연령별로 독서행동, 독서 효능감, 그리고 독서 태도를 측정하여 각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독서행동을 조사하였다. 빈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에서 연령대별 분포는 10대(37.7%), 20대(35.3%), 30대(14.8%), 그리고 40대 이상(12.3%)이었다. 성별로는 남(27.9%)과

<표 2> 응답자의 연령, 성별과 독서활동

항목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10대	46	37.7
	20대	43	35.2
	30대	18	14.8
	40대 이상	15	12.3
성별	남	34	27.9
	여	88	72.1
독서량	없음	21	17.2
	한달 1권	25	20.5
	주 1권	26	21.3
	주 2권	35	28.7
	주 3권 이상	15	12.3
주 독서시간	주 1시간 이하	55	45.1
	주 1-2시간	30	24.6
	주 3-4시간	24	19.7
	주 5시간 이상	13	10.7
total		122	100

여(72.1%)였다. 조사응답자들의 독서량은 달에 한 권도 읽지 않음(17.2%), 한 달 1권(20.5%), 주 1권(21.3%), 주 2권(28.7%), 주 3권 이상(12.3%)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주당 독서시간은 1시간 이하(45.1%), 1-2시간(24.6%), 3-4시간(19.7%), 5시간 이상(10.7%)으로 응답하였다.

4.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설문들의 타당도 분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확인을 위한 Cronbach's alpha 검증

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과 배리맥스(Varimax) 직교 회전 방식을 적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되었던 설문문항들이 연구 설계에서 적용되는 요인구조에 타당하게 반영되는지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분산의 65.65%가 설명되고 있으며, 4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인 문항을 포함하여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설문항목에 Cronbach's alpha 계수는 0.871로 나타나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참조).

〈표 3〉 독서태도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독서인지	Q3	.865	.125	.248	.034
	Q1	.817	.166	.234	.300
	Q4	.755	.205	.205	.054
	Q5	.664	.209	.039	.300
	Q10	.505	.062	.069	.118
독서감성	Q6	.002	.796	.248	.024
	Q7	.160	.760	.087	.089
	Q9	.308	.764	.234	.341
	Q8	-.023	.720	.205	.167
	Q15	.308	.594	.039	.341
독서몰입	Q14	-.011	.073	.689	.041
	Q11	-.007	.142	.672	.038
	Q13	.201	.218	.627	-.123
	Q12	.300	.046	.615	-.154
독서행동	Q16	.299	.238	.152	.689
	Q2	.124	.011	.078	.627
	Q17	.094	.132	.020	.615
	Q18	.260	.176	.075	.517
	Q21	.385	.318	-.079	.437
고유값		4.410	2.995	2.317	2.188
분산(%)		24.497	16.139	12.875	12.155
누적(%)		24.497	40.638	53.511	65.666

4.3 연령대와 독서활동에 따른 독서효능감

연령별(10대, 20대, 30대, 40대)과 독서활동(독서량, 독서시간)에 따라 독서효능감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령별로는 95%의 신뢰도 구간에서는 유효한 결과를 얻었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적은 계층(10대와 20대)이 장년층(30대와 40대)보다 독서효능감이 높게 나왔으며, 특히 20대의 독서효능감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분석되었다($F=2.95$, $p=0.03$). 독서량에 따른 독서 효능감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는데($F=7.46$, $p<0.001$), 주별로 1권을 독서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가장 높은 독서효능감을 보였다.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독서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주별 독서시간에 따른 독서효능감 분석에서는 독서시간이 많은 집단의 독서효능감이 한 주에 독서량이 거의 없는 집단보다 높게 조사

되었다($F=9.71$, $p<0.001$). 전반적으로 독서효능감은 젊고 평소에 책을 가까이하고 읽는 사람들이 높다고 분석된다. 남녀차이에 따른 독서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내용은 <표 4>에 제시되었다.

4.4 연령대와 독서활동에 따른 독서태도

연령별(10대, 20대, 30대, 40대)과 독서활동(독서량, 독서시간)에 따라 독서태도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령대별로는 95%의 신뢰도 구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2.04$, $p=0.11$). 다만 20대와 10대의 독서태도는 30대와 40대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독서량에 따른 독서태도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는데($F=4.24$, $p=0.003$), 독서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이 가장 낮은 독서태도를 보였다. 독서량이

<표 4> 독서효능감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과 독서활동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독서효능감	성별	남	34	3.67	0.55	-1.614 (t value)	0.06
		여	88	3.86	0.601		
	연령별	10대	46	3.82	0.58	2.95	0.03
		20대	43	3.96	0.48		
		30대	18	3.51	0.42		
		40대	15	3.66	0.87		
	독서량	없음	21	3.26	0.39	7.46	<0.001
		한달 1권	25	3.87	0.55		
		주 1권	26	4.10	0.41		
		주 2권	35	3.85	0.63		
		주3권 이상	15	3.84	0.51		
	주 독서시간	주 1시간 이하	55	3.52	0.48	9.71	<0.001
		주 1-2시간	30	3.99	0.55		
		주 3-4시간	24	4.01	0.62		
		주 5시간 이상	13	4.15	0.56		

많은 집단에서 독서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별 독서시간에 따른 독서태도 분석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F=3.97, p=0.01$). 주 1시간 이하로 독서하는 사람들의 독서태도가 낮았고, 한주에 독서시간이 1-2시간 되는 집단의 독서태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독서태도는 평소에 책을 가까이하고 읽는 사람들이 높다고 분석된다. 성별 독서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독서태도가 긍정적이었고(변미경, 2012), 청소년의 읽기태도에 대한 조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읽기태도 수준을 보였다는 연구(최숙기, 2014)가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남녀차이에 따른 독서태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독서량과 독서시간에 의해 많은 독서경험이 쌓일수록 독서에 대한 성공 경험이 많아지고 독서효능감도 높아지

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많은 책을 오랜 시간 읽을수록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된다.

4.5 독서효능감의 독서태도에 대한 영향

독서효능감이 독서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서효능감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독서태도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은 <표 6>과 같다.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효능감에 대한 회귀모형의 적합도인 F값은 38.98이고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서효능감은 유의수준 .05에서 독서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t=6.28, p<.001$), 독서태도 점수의 총변화량의 25.3%가 독서효능감에 의해 설명되고

<표 5> 독서태도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과 독서활동 영향

종속요인	독립변인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독서태도	성별	남	34	3.97	0.36	0.46 (t value)	0.323
		여	88	3.92	0.52		
	연령별	10대	46	3.96	0.54	2.04	0.11
		20대	43	4.04	0.43		
		30대	18	3.75	0.54		
		40대	15	3.78	0.28		
	독서량	없음	21	3.67	0.33	4.24	0.003
		한달 1권	25	3.75	0.52		
		주 1권	26	4.05	0.62		
		주 2권	35	4.09	0.46		
		주3권 이상	15	4.05	0.39		
	주 독서시간	주 1시간 이하	55	3.77	0.48	3.97	0.01
		주 1-2시간	30	4.11	0.41		
		주 3-4시간	24	4.02	0.51		
		주 5시간이상	13	4.04	0.49		

〈표 6〉 독서효능감에 따른 독서태도 회귀분석

Division	R	R ²	F value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alue
				B	표준오차	β	
Model(독서태도)	.498	.248	39.53**	.414	.066	.498	6.28**

* $p < 0.05$, ** $p < 0.01$

있다. 공차와 VIF 각각 0.1이상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서효능감이 높을수록 독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독서태도의 세부영역인 독서인지, 독서감성, 독서몰입, 그리고 독서의지에 독서효능감 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서태도 각 세부영역(독서인지, 독서감성, 독서몰입, 독서의지) 모두에서 독서효능감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회귀모델 모두에서 공차와 VIF 각각 0.1 이상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서효능감이 독서인지에 미치는 영향은 F값이 18.47이고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서효능감은 유의수준 .05에서 독서인지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t=4.27$, $p<.001$), 독서인지 점수의 총변화량의 13.2%가 독서효능감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독서태도의 네가지 세부영역중에서 독서감성에 미치는 영향은 F값이 22.91이고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서효능감은 유의수준 .05에서 독서감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t=4.70$, $p<.001$), 독서감성 점수의 총변화량의 15.5%가 독서효능감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또한, 독서효능감이 독서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F값이 17.45이고 유

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서효능감은 유의수준 .05에서 독서몰입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t=4.17$, $p<.001$), 독서몰입 점수의 총변화량의 12.7%가 독서효능감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서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F값이 17.48이고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서효능감은 유의수준 .05에서 독서의지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t=4.18$, $p<.001$), 독서의지 점수의 총변화량의 12.7%가 독서효능감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독서효능감이 높을수록 독서태도가 높고 독서태도의 하위영역에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라치마안티와 무스소피야(Rachmajanti & Musthofiyah, 2017)의 연구와 맥켄나(McKenna, 1995)의 이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독서효능감이 독서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5. 결론 및 논의

5.1 결론

이 연구는 각 연령대(10대, 20대, 30대, 40대)

〈표 7〉 독서효능감에 따른 독서태도 세부영역 회귀분석

Division	R	R ²	F value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alue
				B	표준오차	β	
Model(독서인지)	.364	.132	18.27**	.386	.085	.364	4.27**
Model(독서감성)	.394	.155	22.09**	.366	.078	.394	4.70**
Model(독서몰입)	.356	.127	17.45**	.453	.108	.356	4.17**
Model(독서의지)	.357	.127	17.48**	.447	.107	.357	4.18**

* $p < 0.05$, ** $p < 0.01$

의 독서활동과 독서 효능감을 측정하여 독서태도에 대한 각 변인들 간의 주요 영향과 상호관계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의 연령대별 독서효능감에 대한 조사에서 20대의 독서효능감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30대와 40대보다 청소년과 20대의 독서 효능감이 높게 분석되었다. 독서량에 따른 독서 효능감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는데, 주별로 1권을 읽는다고 응답한 집단이 가장 높은 독서효능감을 보였다.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독서효능감이 가장 낮았다. 주별 독서시간에 따른 독서효능감 분석에서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독서효능감이 낮았고, 한주에 독서시간이 많은 집단이 독서효능감이 높게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독서효능감은 젊고 평소에 책을 가까이하고 읽는 사람들이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독서태도에 대한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나이가 적은 계층(10대와 20대)이 장년층(30대와 40대)보다 독서태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독서량에 따른 독서태도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는데, 책을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독서태도가 가장 낮았다. 주별로 독서량이 많을

수록 높은 독서태도를 보였다. 주별 독서시간에 따른 독서태도 분석에서는 독서량이 없는 집단이 낮은 독서태도를 보였고, 한 주에 독서시간이 1-2시간이 되는 집단의 독서태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독서태도는 젊고 평소에 책을 가까이하고 읽는 사람들이 높다고 분석된다.

연구결과로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효능감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하고, 독서효능감이 높을수록 독서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독서태도의 세부영역인 독서인지, 독서감성, 독서몰입, 그리고 독서의지에 독서효능감 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에서 모든 세부영역에서 독서효능감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독서시간이 많을수록 독서효능감이 높으며 독서효능감이 높을수록 독서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즉, 독서경험이 쌓일수록 독서에 대한 성공 경험이 많아져서 독서효능감도 높아지고, 많은 책을 오랜 시간 읽을수록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된다. 반면에 독서활동을 하지 않으면 독서효능감과 독서태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논의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독서태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독서율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독서효능감을 높이는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준별 맞춤형 도서 추천을 통해 독서 성공 경험을 쌓게 하고, 독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독서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보고되었듯이 독서효능감은 독서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독서량과 독서시간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독서율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개인의 독서시간과 독서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독서시간이 많을수록 독서효능감이 높아지고, 독서효능감이 높을수록 독서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서시간을 더 늘리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독서 모임 활성화와 독서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다양한 매체와 장르의 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전자책/오디오북 등 비대면 및 모바일 기반 독서 콘텐츠 확충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책을 잘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효능감)과 독서를 좋아하게 하는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 이는 상호영향력이라는 점에서 독서 부진을 겪는 대상에게 독서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효능감과 태도를 높이는 맞춤형 지도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나이에 따른 독서 경향 및 요구를 파악하여, 각 그룹에 가장 효과적인 독서증진 프로

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독서 모임을 지원하고 독서 동아리 활성화 및 운영비 지원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성인들은 낮은 독서효능감과 독서태도에 인해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바쁜 일상 속에서 독서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을 확충하고 짧은 분량의 콘텐츠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하여 독서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인들은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일정 시간 독서시간을 보장하거나 장려하는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월 1회 '책 읽는 날' 지정하고 독서 휴가 지원하거나 독서 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도를 운영하면 독서량과 독서시간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운영 시간 확대뿐 아니라 주변 작은 도서관들의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 독서 인프라 강화도 필요하겠다. 특히 아파트나 마을회관 등 생활권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 도서관에 대한 정책적으로 인적 그리고 금융적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인기에는 성인 독서율은 43%로 성인 중 과반수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문체부(2024) 발표에서 보듯이 독서율이 급감하는 시기이다. 독서활동이 없다면 성인 독서효능감도 급감하지만, 개인의 삶의 질과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강조된다. 이 시기에는 독서의 가치를 알리고 독서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기관, 도서관을 통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적극적 독서활동이 다시 독서 효능감이나 독서 태도를 강화하

는 순환적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40대의 응답자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어 분석에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기존에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독서효능감과 독서태도를 주요인으로 분석했던 아쉬

움이 있다. 향후 연구는 더 나아가 더 많은 요인들을 추가하여 각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영향력 구조를 검증하여 독서효 향상에 효과적인 추가적 방안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선미, 박찬호 (2018). 독서태도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7(1), 5-33.
<https://doi.org/10.18284/jss.2018.04.37.1.5>
- 김지숙, 김기영 (2020). 청소년의 지속적 독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2), 159-186.
<https://doi.org/10.16981/kliss.51.2.202006.159>
- 남태우, 류반디 (2012). 독서에 있어서 주요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313-332. <https://doi.org/10.16981/kliss.43.3.201209.313>
- 문체부 (2024).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308>
- 박주현, 이명규 (2015). 독서태도 모델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271-297.
<https://doi.org/10.16981/kliss.46.4.201512.271>
- 변미경 (2012). 초등학교생들의 독서 실태와 독서 지도에 대한 초등학교생들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변우열 (2012). 독서태도 모형 분석을 통한 독서태도 조사 설문 내용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139-159. <https://doi.org/10.16981/kliss.43.4.201212.139>
- 왕효성 (2014). 청소년 독자들과 독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 독자들이 말하는 책 읽기 '좋고 싫음'의 이유를 바탕으로. 독서연구, 33, 171-198.
<https://doi.org/10.17095/JRR.2014.33.5>
- 윤준채 (2008). 한국판 초등학교생 읽기 태도 검사 도구의 타당도 검증. 한국초등국어교육, 37, 223-246.
<https://doi.org/10.22818/jeke.2008..37.223>
- 이순영, 최숙기, 서혁, 박영민, 김주환 (2015). 독서교육론. 사회평론아카데미.
- 이연옥 (2011). 초등학교 학생들의 독서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293-309.
<https://doi.org/10.16981/kliss.42.3.201109.293>

- 이향미, 정혜원 (2019). 청소년의 독서활동,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관계. *교육학연구*, 57(3), 233-257. <https://doi.org/10.30916/KERA.57.3.233>
- 전보라 (2020). 대학생용 독서태도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독서연구*, 56, 247-277. <https://doi.org/10.17095/JRR.2020.56.9>
- 정대근 (2022). 대학생의 독서태도 및 독서량, 성격유형 간 상관관계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1), 211-230. <https://doi.org/10.16981/kliss.53.1.202203.211>
- 최숙기 (2014).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읽기 태도 양상에 관한 연구: 읽기 목적과 읽기 매체 변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9(1), 733-765.
- 최윤희 (2015). 고등학생의 읽기 효능감 구성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Cancino, M. & Gonzalez, N. (2023). Exploring reading attitudes, reading self-efficacy, and reading proficiency in a blended learning context among EFL learners. *Journal of Language and Education*, 9(4), 31-45.
- Carroll, J. M. & Fox, A. C. (2017). Reading self-efficacy predicts word reading but not comprehension in both girls and boys. *Frontiers in Psychology*, 7, 1-9.
- Liska, A. E. (1984).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ausal structure of the Fishbein/Ajzen attitude-behavior mode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1), 61-74.
- Mathewson, G. C. (1994). Model of Attitude Influence up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In R. B. Ruddell and H. Singer(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 of Reading* (4rd ed.).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131-1161.
- McKenna, M. C. (1994). Toward a Model of Reading Attitude Acquisition. In E. H. Cramer, and M. Castle(eds.). *Fostering the Love of Reading: the Affective Domain in Reading Education*.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8-40.
- Rachmajanti, S. & Musthofiyah, U.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self-efficacy, reading attitude and EFL reading comprehension based on gender differnces. *Journal of English Language, Literature, and Teaching*, 27, 20-26.
- Ruddell, R. B. & Speaker, R. (1985). The Interactive Reading Process: A Model. In: H. Singer and R. B. Ruddell.(eds.),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 of Reading* (3rd ed.).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Unrau, N., Rueda, R., Son, E., Polanin, J. R., Lundeen, R. J., & Muraszewski, A. (2017). Can reading self-efficacy be modified? A meta-analysis of the impact of interventions on reading self-efficac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88(2), 1-3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Mikyung (2013). Actual Reading Condition and Perception on Reading Guide of Elementary Students. Master thesis, Kyungnam University.
- Byun, Woo-Yeol (2012). A development of the contents for the reading attitude survey questionnaire through the analysis of reading attitude mode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139-159. <https://doi.org/10.16981/kliss.43.4.201212.139>
- Choi, Sook-ki (2014). Exploring Korean adolescents' reading attitudes model.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49(1), 733-765.
- Choi, Yun-Hee (2015). The Reading Self-Efficacy Constructs of Academic Highschool Students.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Jeon, Bora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reading attitude test tool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56, 247-277. <https://doi.org/10.17095/JRR.2020.56.9>
- Jeong, Daekeun (2022).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reading attitude, reading amount, and personality typ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1), 211-230. <https://doi.org/10.16981/kliss.53.1.202203.211>
- Kim, Jisuk & Kim, Giyeong (2020).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sustainable reading attitude: focus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2), 159-186. <https://doi.org/10.16981/kliss.51.2.202006.159>
- Kim, Sunmi & Park, Chanho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ading attitude scale. *Korean Research for social Science*, 37(1), 5-33. <https://doi.org/10.18284/jss.2018.04.37.1.5>
- Lee, Hyangmi & Chung, Hyewon (2019).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adolescents' reading activity,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7(3), 233-257. <https://doi.org/10.30916/KERA.57.3.233>
- Lee, Sunyoung, Choi, Suk-ki, Seo, Hyeok, Park, Youngmin, & Kim, Juhwan (2015). *Reading Education Theory*. Social Criticism Academy.
- Lee, Yeon-ok (2011). Elementary students' attitudes toward read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293-309. <https://doi.org/10.16981/kliss.42.3.201109.293>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4). National Reading Status in 2023. Available: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

- Nam, Taewoo & Ryu, Bandi (2012). A study on the main factors in read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313-332.
<https://doi.org/10.16981/kliss.43.3.201209.313>
- Park, Juhyeon & Lee, Myounggyu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odel for attitude toward read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271-297.
<https://doi.org/10.16981/kliss.46.4.201512.271>
- Wang, Hyoseong (2014). Exploring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readers' reading attitude: based on reasons adolescent readers explained why they like or dislike reading. *Journal of Reading Research*, 33, 171-198. <https://doi.org/10.17095/JRR.2014.33.5>
- Yoon, Joonchae (2008). A study of validity of Korean 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 *Journal of Elementary Korean Education*, 37, 223-246.
<https://doi.org/10.22818/jeke.2008..37.223>

